

가족생활의 변화

천 예 정 (이화여대 강사)

현재 주 5일 근무제의 실시 시기와 방법상의 문제에 대한 노(勞)·사(社)·정(政)계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지만, 주 5일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것이라는 예측은 여전히 유효한 듯 하다. 그러나 노동 시간의 단축이 가족 관계나 가정 생활에 주는 영향에 대해 핑크빛 낙관이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우려만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사회, 특히 가정 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작업은 소홀하다는 연구자의 문제 의식에 공감하는 바이다. 이 시점에서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가정 생활 전반에 대한 변화를 조사한 것은 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가족 관계, 경제 생활, 가사 노동, 여가 생활 등으로 세분화하여 가정 생활의 총체적인 실태를 살펴본 논의의 광범위함 또한 본 연구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토론자는 연구의 전체적인 논지와 결과에 대한 반론보다는 논의의 보강과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사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늘어난 여가 시간이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패러다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은 가족 구성원간의 의사 소통이나 관계 향상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 5일 근무가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결과를 보더라도 ‘가족 관계가 더 돈독해짐’이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이 압도적임을 볼 때, 부부의 대화 시간이 늘어났다는 응답이 전체의 70~80%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그리고 주 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이 비

실시 집단에 비해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볼 때(김현주·이창현·박소라, 2002)¹⁾, 주 5일 근무는 가족에게 상호적으로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현상임이 입증되고 있다. 특히 부부의 공동 여가 활동은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데, Hill(1988)²⁾은 부부간의 공유 시간 및 활동은 5년 후 부부의 결혼 안정성을 예측하는 중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발견하였다. 즉,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주당 1.7시간에서 4.9시간으로 증가할 경우 5년 이내 이혼할 가능성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은 자녀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위한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 5일 근무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긍정적인 측면을 전제로 한 분석이 대다수이다.

두 번째 관점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긍정적인 경험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즉, 주 5일 근무제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한 가족의 경험은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생활 주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 관점은 가족내에서의 젠더 관계와 파워에 집중하여 사회 구조가 가지는 특징, 예를 들면 가부장제 같은 구조가 여성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여성부에서 실시한 ‘주 5일 근무제가 가져올 가족 관계의 변화는 무엇일까?’라는 인터넷 설문 조사에 의하면(2002년 10월 현재 4028명이 참가함), ‘가족의 유대가 강화될 것이다’라는 답변이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답변이 50%를, ‘가족 여가 시간이 늘어나 남편들이 피곤할 것이다’라는 답변이 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등한 부부관계를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항목에는 10%만이 동의하고 있음을 볼 때, 늘어난 여가 시간 자체가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맞벌이 부부의 여가 활동의 차이를 연구한 이승미(1996)³⁾의 연구에서도 휴일의 여가 시간에서 부부간에 94분의 차이가 나는 것은 가사 노동의 일차적 책임을 맡고 있는 부인의 이중 부담이 여가 시간을 제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1) 김현주·이창현·박소라(2002).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직장인들의 주말 여가 문화 이용 행태 변화: 설문 조사를 통한 실시 집단과 비실시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주요일 근무제 도입과 생활 문화의 변화*(p. 24-37). 제 1회 여가·문화학회 포럼 자료집.

2) Hill, M. S. (1988). Marital stability and spouses shared time. *Journal of Family Issues*, 9, 427-451.

3) 이승미(1996). 맞벌이 부부의 여가 시간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63-75.

한편, 늘어난 여가 시간으로 인해 부모 자녀 관계가 항상 긍정적으로만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지만, 자녀들은 가족 외부에서 방과후나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나 활동은 그리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실제로 청소년에게 선호하는 여가 활동을 질문한 결과, 가족과의 시간은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청소년들은 발달적 특성상 가족과의 갈등을 가장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가족과의 시간이 일관되게 긍정적인 경험이 아닐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늘어난 자유시간 자체만으로 가족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한 가족이 이러한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공동의 활동에 참여하는가가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두 가지 관점을 전제로 본 연구 중 <가족 관계의 변화> 부분에 대해 고려해 볼만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남편과 그들의 아내이며, 아내들 중 45.5%는 full-time 취업 주부이거나 part-time 취업 및 부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내의 취업 여부가 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를 분석하는데에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이 아쉽다. 왜냐하면 아내의 취업 유무는 결혼 만족도나 부부 갈등, 부부 권력, 가사 노동 및 여가 생활 등 가정 생활 전반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변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내들 중 full-time 취업 주부의 경우 주 5일 근무제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둘째, 연구자도 지적했듯이 조사 대상자 중 39세 이하의 응답자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조사 항목이나 연구 결과의 설득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39세 이하의 부부라면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 실시 이후 부모 자녀 관계가 돈독해졌다는 80%에 가까운 응답, 가족끼리의 여행(나들이)이 늘어났다는 60% 이상의 응답, 또는 자녀와 함께 하는 놀이가 늘어났다는 50% 이상의 응답 등은 자녀의 연령에 크게 영향을 받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만약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가정이 대부분이었다면 응답 결과는 상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편과 아내를 쌍으로 조사한 경우, t-test보다는 paired t-test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연구 결과에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셋째, 가족 관계의 변화 정도를 측정한 항목에 부부의 대화 시간, 가족끼리의 여행(나들이), 자녀와 함께 하는 놀이, 친지 방문, 부부 공동 여가 활동, 그리고 부부의 성관계를 포함시켰는데 특별히 이런 항목을 포함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특히 단순히 성관계의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변화를 측정한 것은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너무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된다. 예를 들면, 주 5일 근무로 인해 휴일이 늘어 성관계 횟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럽다. 성관계 횟수의 증가가 부부 관계의 향상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 단순히 횟수에 대한 항목을 넣은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부 관계에 주로 초점을 두고(대화시간, 공동여가활동, 성관계)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항목(자녀와 함께 하는 놀이)과 가족 전체가 하는 활동에 관한 항목(가족끼리의 여행, 친지 방문)도 추가하였는데, 좀 더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체계적인 항목 구성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예를 들면, 부부 관계에서는 대화 시간(의사소통), 관계에 대한 만족도, 친밀감, 평등성, 공동여가활동 등으로, 부모-자녀관계도 마찬가지로 대화시간, 자녀와의 유대감, 공동여가활동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별이나 세대에 따라 경험하는 변화의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경험뿐만 아니라 불만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면, 주 5일 근무로 인해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한 경우, 그 시간의 사용에 대한 가족원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개인의 욕구와 가족의 욕구가 상충함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에 대한 항목도 포함이 되었으면 좀 더 가족 관계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가족 관계의 변화 내용에서 평균을 통한 아내와 남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특히 연구자가 주 5일 근무로 인한 가정생활의 변화에 대한 경험이 남편과 아내에게 다른 인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명백히 밝힌만큼, 가족 관계의 변화 내용을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면 더 흥미로운 결과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